



## 명월봉 선생

명월봉 선생은 1913년 정월 7일에 원동반강 연해구 빈씨씨호 구역 시지미촌 빈농민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명 선생의 복친은 명 선생이 어렸을 때 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주로 어머니와 맏형의 교양을 받으면서 잔뼈 굵게 되었다.

향촌 시지미에서 소학교를 졸업하고 1925년부터 어머니를 돕아 1929년까지 일하였다. 1929년 가을에, 16세 되던 해에 어머니와 형님이 뽕여준 돈을 가지고 원동에서 제일큰 항구도시 블라지보스또크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다. 블라지보스또크 고중에 입학한 명 선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공산청년단 체를 통하여 사회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시었다.

명월봉 선생은 어린 유년시절부터 책 읽기를 몹시 좋아하였으며 작물 장기를 아주 즐기었다. 공학교 시절부터 문학씨클에 열성적으로 참가하면서 자기 동창생들 앞에서 시 낭송, 연극 각본, 신문 랑독 등의

인기를 끌곤 하였다. 1935년에 고종을 바감한 명<sup>2</sup>  
선생은 고종 공산청년 단체의 아주 훌륭한 평정서  
에 따라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고려인 사  
범대학 문예과에 입학하였다. 대학 1학년을 마  
감하자 원동으로 부터의 한인 강제이주가 시작되어  
중아시아로 이주하게 되었다. 그런데 명선생 앞에는 크  
다란 문제가 제기되었다. 한인들에 대한 강제 이주는  
지역 별로 따라 각이한 시간에 출발되게 되었으며  
또 최종 목적지도 잘모르고 있는 형편에서 형과 어버  
니가 계시는 시지미 시에 찾아와 그들과 같이 동행할  
것인가 그렇지 아니면 학교와 같이 달타가는 학생들  
과 같이 동행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우선 어버니는  
형님이 계시니 말 문제가 없는 것이여 짐에 가고, 또 새  
이주 정책지에 도착하여 대학을 찾아가는 문제는 시  
간상 문제도 그렇지만 누가 일전 푼푼하게 돌아 갈  
사람도 없는 형편에서 경제문제문제가 어렵게 제기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학과 같이 따라 이주하기  
로 결론 짓고, 대학을 따라가는 다른 학생들과 같이  
이주 기간 대학로 부자로 등용되려서 대학출산  
적재, 하차 운반사업에 전적으로 협력하여 가면서  
가자흐한, 크슬물다 시에 도착하였다. 블라지  
보브도코에 조직되어 많은 유능한 한인 지식인  
들을 배출한 한인 사범대학은 전 세계적 범  
위에서 첫 한인 대학이었다. 우리 선조들의 조국의  
수도 서울에 대학들이 있었지만 그 대학들은  
전부다 일본으로 교수하는 일본인 대학이었  
다. 이렇게 자랑스럽던 대학도 쓰하린의 민족

한 압축책, 그의 절대적 파소독제 정책에 의하여 아  
 배한 한인들에게 일제의 스파이 동정자로, 반역에 일  
 제가 소련에 취업할시 일제를 지지할 기본조건으로 될수  
 있다는 추명을 시워 원종지역에 살고 있던 전체 한인  
 들과 전 소련 각 도시들에서 살고 있던 한인들과 각 병공  
 등에서, 각 내무기관, 사법기관 등에서 복무하던 모든  
 한인들을 제때, 해고 식혀 전 북부 동양 중 아시아  
 로 실려왔다. 이 당시 반역 남편이<sup>한인인</sup> 복인이 다민족일  
 경우에는 복인로 남편을 따라 강제 이주당하였으며,  
 반역에 정반대로 남편이 다른민족이고 복인이 한인일  
 경우에는 그가정은 반듯이 파산되거나, 그렇지 아니면  
 남편의 결심에 따라 한인들이 같이 이동하게 되었다.  
 강제이주는 전에 없던 무법천지 강제, 폭력 행동이었  
 기때문에 수많은 가족들은 외지로 출장갔든 식구가  
 자기 살던 지역에 다시 돌아올 시간이 부족하여, 자기  
 가족과 분산 되어 이주당하였다. 그것은 여짜한지  
 역이나 불분하고, 지역 이주 책임자의 말에 떨어지자  
 한인들은 48시간, 특별한 경우, 궁핍한 지역에 살고  
 있는 가정에 한하여서만 72시간 이내로 살던 지역  
 을 떠나 화물 자동차에 약간의 이불공님이나 공일  
 분 양식을 갖고 적재하여야 하였다. 살던 자리에서  
 떠날시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현물이나 현금으로  
 두고 온 재물들을 보상한다고 하였으나, 그런것을 추구하  
 고 달라고 할 할수로 없었다. 금년이 강제이주 60  
 주년이 다 되었다. 한인들은 그 추악한 일제스라이  
 추령을 벗어날수 없었고 또 누가 그런추령을 벗겨줄생각  
 도 없어도 안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구름한

죽어 가는 대낮에 벼락을 맞은 모양이 된 부활적 노년  
 한 한인들과 그들의 자손들은 그 추해한 그 수령 "일원스타이  
 수령"을 배기려 인간의 가장 귀중한 인간다운 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특별히 금년에, 강제이주 60돌에 제  
 하여 우르베크란드에 살고있는 한인 남녀노소들은 5천명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런지  
 모르나 대다수 한인들의 기대는 대단히 크다.

부모나 친척들에게서 하등의 방조도 기대할 수 없는 형  
 선생은 강제이주 후 코슬로다 시에 도착하여서도 공복은  
 계속하고 있었으나 그 비바빳한 경제적인 조건을 해결하  
 기 위하여, 블라지 보스도크 시에서 공부하던 중학교 시  
 절에도 널판자공장에서 여름동안이면 노동하여 의복  
 과 신발 물건을 해결하듯, 이중아시아 고된 여름기  
 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나 나물 없이 없이  
 하여 자기 용돈 벌이를 하곤 하였다. 형 선생 성격은 원  
 래 우렁차림 씩씩하고, 깨끗하고, 강철과 같이 강하  
 여 깎여는 질지언정 후타돌지는 않는 성격이었다.

선생은 목았어나 울음과도 언정한 일에는 손을건고 선  
 뒤에 서서 처리하였으나, 그곳된 일에는 불구 대천이  
 었다. 형 선생은 대학 시절에도 공영회 사업은 비롯한 기  
 타 사회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면서 특히문학서클  
 에 열성적 기교를 발휘하여 창작물에 세련을 연마하였다

형 선생은 1929년에 함흥사범대학을 졸업하고 동년  
 신학기 개혁과 태세를 같이하여 각각은 공화국 우르도베  
 군소재지 고급중학교 문학교원으로 파견되어 교편을 잡게  
 되었다. 고급 문학교원으로 배치받자 항상 비바빳하게 살아  
 가던 경제구속에서 해방되어 원세부하은 의복차림도 잘

5.  
 하고 26세의 성숙되고 상식상으로 준비된 미남자도 취  
 결집에 상당한 취미가 있으면 부모들에게 혼사말르릴  
 생각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 멀베리 않고 본산-교육사  
 업비, 또는 사회사업에 열중하면서 일년동안이나 시간을  
 두고 자기의 일생을 같이할 대상을 끌고 없었다.



사진은 1956년에 형성생이 인민군  
 신문사 부국필로 게시 당시다.

평양역전에서 자기 복인 김울리가와 같이 촬영하였다.

형 월봉 선생은 이렇게 외침으로 일년동안 일하다가  
 1940년에 무슨 도에 시에서도 으름가는 어머(형) 취리  
 김울리가 양에게 장가들었습니다 결혼후 일년간 일한  
 다음 1941년에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조국전쟁이 시작되  
 었다. 그 당시 한인들은 강제이주당시 씨외동은 두명 에의  
 하여 불신입불자로 전선에는 파견하지 않고 그 대신, 큰  
 령 전선에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부분적 한인 청년들은  
 조력전선에 파견되었다 하여도 제 일선에서 최고부  
 설, 철도 우리 작업은 전후부터의 업무와 못지 않게 위험하

하였다. 그 당시에 명선생도 로동전선에 동원되어 제 일선근방 도시, 투스크바시 남부에 위치한 클라-공업도시에서 공장 노동자로 약 반년간 일하다가, 마침내, 사대졸업생 교원들은 로동전선에서 제대시켜 자기본직업, 교육사업에 돌리라는, 소련 최고소베트 상임위원회 결정에 따라 자기 학교에 돌아와 일하게 되었다.

1945 년에 소련인민의 위대한 조국전쟁은 소련의 절대적 대승리로써 끝났으며, 1945 년 8 월 15 일에는 일제가 패망되고 한반도가 해방되었을 때에 명선생은 소련정부의 파견을 받아 북한에 가게 되었다 평양에 도착한 명선생은 김일성 종합대학 교원으로 일하였습니다. 1950 년에 남침으로 시작된 동족 삼잔시기에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소베트 국가의 명의로 출판된 "소베트신보"사의 사원으로 일하시다가 1955 년 "소베트신보"사가 해산되자 명선생은 "인민군" 신문사에 전근 되어 처음 교정원으로 다음 부주필로 1958 년 말까지 일하였다.

명선생은 일제에서 해방된 북조선에서 조국건설에 있는 다 반해가며 열성적으로 일하시었다 13 년이란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대학졸업 상식을 가진 문학과원으로서 기술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성숙된 국가적 수준의 인재였다 명선생은 말씨는 깔아아내하느냐 어느때든지 사회질서에 대한 관철은 명철하여서 북한이 사회주의 길에서 배반적으로 리탈하여 극체점 대리를 쓰는 개인독재주의, 민족주의 형용에 백색계급주의 길로 나아가 있다는 것을 똑똑하게 알고 있었다. 명선생은 백헌명에 대하여 비러낸 피비린 비극, 허가이만살

사건, 특히나 자기의 가까운 친구들이었던 김태권  
 김원길, 김철우, 안철, 김일예 대한 허무맹랑한 수형  
 은씨의 불칙 제재 후속 또 그후 김철성, 리익선 정  
 함준 등 후속들에 대한 비극은 명선생같이 천명같이  
 개골한 인간에게 더는 북한에서 살수있는 도덕적  
 정신을 가지 않았다. 이후 명선생은, 드리에 소련대  
 사관에 찾아가 소련 공민권 회복에 대한 청원을 소련  
 최고 소비에트 상임위원회 위원장께 제출하고, 소련 귀국 요청  
 까지 제의하였다. 명선생은 1958년 9월에 청원문제  
 출하여 동년 11월에 모스크바의 허가를 받고 11월 중  
 후에 전가족이 평양을, 선조들의 고향, 또 소련에 살고 있  
 는 수십만명의 한인들의 보고 싶은 원망의 나라를 떠나  
 게 되었다. 명선생은 출발하기전 후천 수만명의 한인들이  
북한에서(은 사람들), 중국에서 나온 사람들, 남한에서 들어온  
사람들, 일본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원망하러 들고 다니  
 는것을 볼게되었다 그들은 명선생의 가정을 보고 말  
 하기를: 「당신들은 갈수 있어, 가게 되어 좋다」고 하였다.  
 - 우리들은 「갈데르 없애, 소련서 온사람들도 극적이  
 완전히 조선국적(이중국적이 아예)이 된사람들은 떠  
 날수가 없었다.) 이렇게 죽어 불췌리고 평양에서  
 출출되어 농촌에 나가게 된 가정들은 2-3년후 완전  
 히 전가족이 12월이라고 말았다. 우리백공화국에  
 서 북한에 4간 (공산당 중앙 비탈을 전고 재로써 의하면)  
 총 세대주 수는 2621명, 그중에서 공화국에 도류 돌아온  
 가족 세대주 (유가족 후원회의 총계에 의함)는 2세대  
 세대주와 함께 돌아온 가정은 42세대, 1997년 5월  
 19일 현재로 남아 있는 세대주는 61명, 독신할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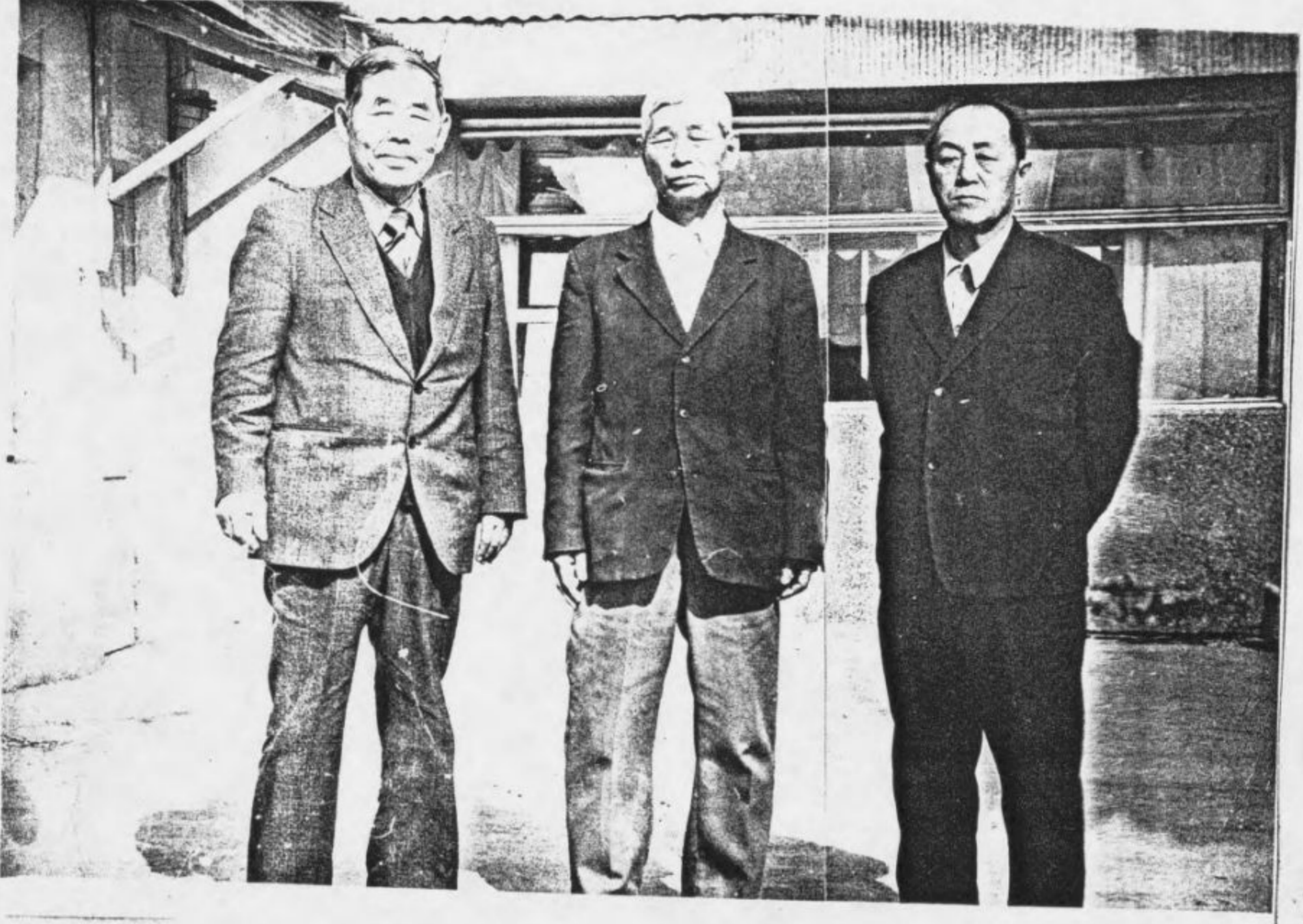
29명, 생존하고 있다. 그 남아지은 전북다북조선  
 농촌지방이나 한강에 가서 죽었다. 현재 평양에 살고있는  
 전 소년출신 간부 제 2차대대는 김봉철, 김학연, 박영, ~~박영~~  
 고 명철군에 김철문 선생의 아들 화실티가 있고, 대령군에  
 살고 있던 전 로동성 부상 박태준 씨의 가정은 소년에 와서 살  
 고 있는 자식들과 연락이 끊겨있어 김산군 어느 공작반 출  
 세 실어따가 활살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명선생은 확실히 명철한걸  
 심을 채웠다고 제때에 그 활살자들의 본에서 활출하게  
 되었다.

명선생은 1958년 11월에 모스크바에 도착하여  
 당중앙 위원회 외무사업 담당 조직부장의 지시를 받  
 아 다뉴겐으로 도착하게 되어 당중앙 고급당학교에  
 서 공부하게 되었으며, 가족은 다뉴겐 시내 실란사르  
 에 집을 배정받고 아들은 형제는 각 대학들에서 공부  
 를 계속하게 되었다. 명선생의 부인 김물티가는 재봉공  
 장에서 기술재봉공으로 취직하게 되었다. 명선생은 1962  
 년에 다뉴겐 중양 당학교 신문기와 학부를 우수한 성  
 績으로 마감하고 중앙아시아에 유일한 한민 신문  
 <레닌기치> 신문에 파견되어 거기에서 신문교정  
 원, 신문기각등 직능에서 여러<sup>번</sup>동한 일하시면서 계  
 속 시, 단편소설 등을 계속쓰면서 세계 한민 문화  
 발전에 필요한 제책으로 리론 논설들을 주차 서술  
 하여 <레닌기치> 신문지와 한국신문들에 <sup>중</sup>발  
 표하였다. 1991년에 서울<sup>에서</sup>행된 한글리론 콘퍼런  
 지아가 진행되었는데 선생은 <국어-한국어 단  
 어 조성법에서의 대비관계 고찰>이란 보고서를 그 때

회에 보내어 그 대회 문고 종합철과 또 다른 소책자  
로도 발간되었다. (종합철 157 페이지) 대회의 총제라는  
« 한글 »이란 명칭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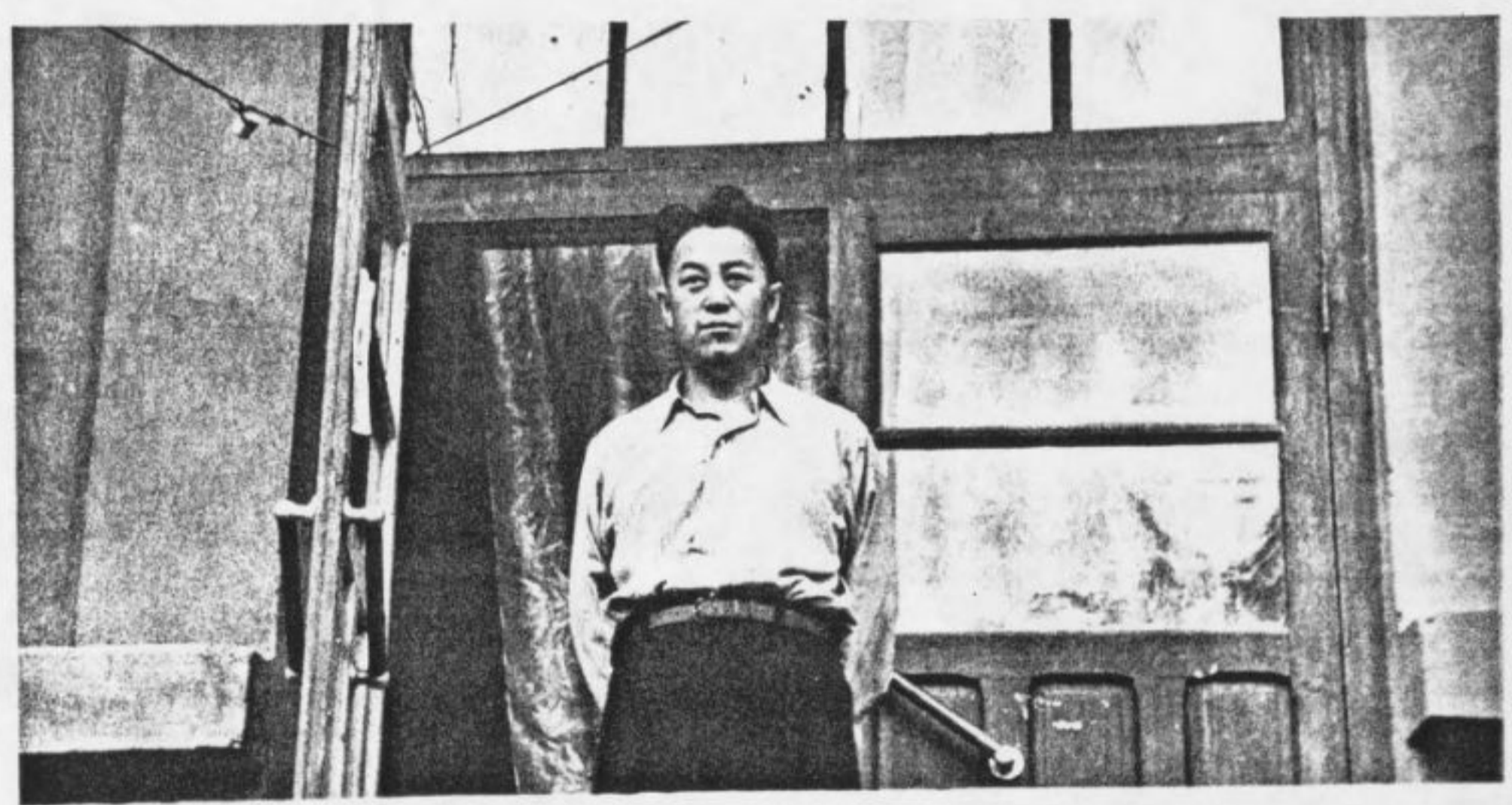
역시 1991년에 « 외국인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  
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 제목으로 진행된  
판페션 세미나에로 선생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내  
었더니 그의 제목은 « 재노 고려인들에 대한 교  
육의 역사적 과정 »이었다. 본 보고서도 역시  
대회 종합문고철에 기록되었으며, 소책자도 독립적  
으로 출판되었다. (종합철 - 275 페이지)



사진은 명선생 아래(왼기치) 신문사 기자로 계시는  
자기와 다정한 친구들과 같이 촬영한 사진  
좌로부터: 김두철 선생, 김호즈 관리위원장,  
명월봉 선생.

영선생은 1983년까지 신문사에서 21년간이나  
 일하시기도 그후 퇴직생으로 나와서도 하유켄은 사범  
 대학 고려학부에서 자기생애의 마지막날까지 교  
 편을 잡고 젊은 세대들이 교차입에 있는 열성을 다하  
 였다. 이렇게 일하시면서도 방학동안 학생 봉사사업에  
 열광하여 여러편의 시와 단편소설들을 후대들에게  
 남기 놓았다.

영선생의 단편 작품들을 김연우 박사의 역으로  
 출판된 <자발타냐 너는 나의 생명> (1989년  
 2월 1일 시월) 책 제 170-213 페이지에 : 그들의  
 열정, 라들사한들, 권사의 편지등을 발표 하였  
 2차, 영선생의 시들을 <타라라 고려날모사의 발  
 행>을 출판된 종합시집 : <꽃피는 땅> 의 127-  
 136 페이지에 : 조국의 꿈, 마이삭, 편지를 지키자  
 등의 제목으로 실려 있다.



사진은 당악교 졸업후 <제비기치> 신문사에서  
 일하실 때에 촬영한 것이다.

1령 선생은 자기 생애의 말미락날까지 행이(11)  
라고는 모르고 건강체로 계시며 일하시다가 심장라비  
병으로 1991년 12월 25일에 서거하시었다. 1령  
선생은 북한 정체와 기본 로선물례를 무르베헌애 다  
시 귀국한후 무차 다시 평양에 들어갈기회는 없었  
지만 사상적으로 흠쳐서 돌아온 길로 다시 걸고, 자기  
양심과 가까운 친구들의 명예를 복일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자기 선조들의 고향인 남한 서울길은  
성스럽게 걸게 되었던와 1991년 10월에 광주  
대학교의 초청을받아 남한 땅을 처음어자 말미  
락으로 밟게 되었다. 남한에 도착한 1령 선생은 남  
한의 많은 과학, 문화인들과 뜻 같은 사상이 갖는  
여러 인제리들과 더함없이 기쁨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 받음주었었으며, 말으로 할일들에 대하여 여쭙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불행한 원인은 1령 선생의 많은 할수있  
는 일들을 성공케 못하였다. 1령 선생은 아들 3형  
제 딸하나와 많은 손주들을 자기와 일생을 하루  
같이 다정하게 지내든 부인 김유희가 에게 남기고  
원저 세상을 떠났다. 1령 선생의 장남 1령 트리  
트리는 과학계에 널리 알려진 과학인 역사학  
박사이며, 여남과 3남도 대학을 나왔, 취신 갖춘  
경제 역군들이며, 딸 1령 로사도 위신있는 역군으로  
사회에 진출하며, 1령 일가어 어머니 건강에 대해  
여 걱정하여 주고 있다.

1997년 5월 20일. 장원.